〈3부〉 역사와 문화의 강

❶ 문화관광 자원 발굴하자

영산강은 남도 땅 136㎞를 가로질러 흐르며 남도민에게 기름지고 넉넉한 땅과 생명수를 제공해온 '남도의 젖줄'이었다. 이러한 영산강이 있었기에 영산강 유역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됐으며, 여기서 남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영산강은 구석기 유적의 최대 밀집지역 등 고대문화 핵심지역이기도 하며, 고대 한·중·일 교류사를 조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영산강 유역에 누각과 정자가 1천688개소에 달할 정도로 영산강은 가장 한국적인 강이며, 남도의 문화적·예술적 기질을 잘 담아내면서 흐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치수와 수질개선에 초점이 맞춰있긴 하지만, 영산강 주변 고대 문화권 특성과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산강은 고대문화 '보고'(寶庫)**=영산강은 전남의 8개 시·

고대부터 남도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준 영산강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발원지로 거듭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사진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도 義·藝·美 발원지…멋·예술 다시 흐르게

고분·고인돌 밀집 고대유적 寶庫
뱃길 끊긴후 문화·역사 흐름 단절

군 809㎢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영산강 고대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돼 문화재 정비와 문화유적 전승, 관광휴양시설 정비, 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이 추진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목포와 나주·무안·함평·담양·화순·영암 등 7개 시·군에서 복암리 고분 전시관, 영산강 역사문화단지, 세계유산 고인돌 공원, 초의선사 탄생지 현창사업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은 우리나라 유일한 고대복합 묘제 고분 등 구석기 유적의 최대 밀집지역이다. 대형고분 36기가 밀집해 있고,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1만여 기가 밀집해 우리나라 최대 고인돌 분포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분과 고인돌은 영산강이 역사의 발원지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영산강 정자 및 누각 문화 왕성**=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남 지방에 현존하는 누각과 정자는 639개소, 현존하지 않고 기록만 남아있는 누각과 정자는 1천94개로 모두 1천688개소의 누각과 정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영산강 유역의 누각과 정자는 현존 395개소, 현존하지 않는 곳은 528개소로 총 923개의 누각과 정자가 있었다. 전남 전체 누각과 정자의 56%에 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나주시가 165개소, 함평이 146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7곳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가사문학의 탄생 배경지이기도 하다.

이는 영산강 유역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돼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멋과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가 발현했었던 곳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대로 남도가 지니고 있는 의향과 예향, 미향 등 세 가지 문화 모두 영산강에서 발현한 것이다.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 영산강**='남도의 젖줄'이었던 만큼 강 상·하류에는 많은 나루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 후기 나주에서 목포까지의 나루로 알려지고 있는 곳은 영산포를 비롯한 천동포·복바우·구진포·제창포·서촌나루·사포 등 26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영산강을 이용한 뱃길이 활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포구와 나루터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되고, 이 뱃길을 이용해 새로운 문화는 영산강 유역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산업화 속에서 뱃길은 퇴색됐고, 1972년 영산강 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물길이 막혀 결국 뱃길은 끊겼다. 또한, 나주·담양·장성·광주호 등 4개의 댐이 축조되면서 유량도 크게 줄었고, 강을 통한 문화의 이동은 단절됐다. 최근 100여 년 동안 영산강 유역의 문화 공동화 현상이 지속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화가 흐르는 영산강으로**=지역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 복원과 문화유적 발굴의 호기로 보고 있다. 또한, 영산강 유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전통·문화·역사자원을 잘 활용하면 전남이 강을 통한 문화콘텐츠 발원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영산강 사업에 앞서 철저한 사전 학술조사와 연구가 이뤄진 뒤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과 함께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과 고대 농경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영산강 문화권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 별 기 고 이기병 전남도의회 영산강프로젝트 특별위원장

문화관광 꽃피울 뱃길복원 '영산강 살리기' 핵심

흔히들 우리는 영산강을 '호남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수로 이용은 커녕 농업용수로도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반드시 깨끗한 강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퇴적토 준설과 통선문 확장을 두고 일부에서 운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리이며 소모적 논쟁일 뿐 아니라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전남도민 모두가 전략적이고 발전적으로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크게 치수, 수질개선, 그리고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뱃길복원사업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강을 살리는 사업의 기본사업은 치수, 수질개선사업이지만 문화관광, 뱃길복원사업도 강을 아끼고 보존시켜 나갈 중요한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류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돼 오면서 문화의 꽃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유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오래된 삼한지대, 마한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몽 드라마를 촬영했던 나주시 공산면에 위치한 삼한지 드라마 세트장도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산강 강변도로야말로 문화관광의 새로운 길잡이로 영산강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강변도로를 따라가는 멋진 풍경과 이를 이용한 스포츠, 영산강을 이용한 수상 스포츠, 레저, 관광사업 등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문화관광산업들도 자연스럽게 영산강 주변의 8개 시·군에서 개발될 것입니다. 나아가 뱃길복원사업이야말로 핵심사업이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꽃입니다. 영산강에 관광선, 유람선을 띄우는 것이야말로 주변의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적으로 강 이용을 잘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등이 뱃길을 잘 이용해 문화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영산강을 보고 느낌으로써 도민들이 강에 대한 가치 그리고 보존할 책임도 함께 키우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영산강은 1981년 하구둑을 준공하기 전까지 무려 천년 이상 배가 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홍수예방과 영산강유역의 농경지 10만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구둑을 준공하면서 뱃길이 끊겼습니다. 태조 왕건이 송학에서 이곳 영산강으로 배를 이용해 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도 기록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 나주를 중심으로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치수, 수질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뱃길복원사업을 통해 문화관광사업도 활성화돼 영산강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도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